

<2021년 2월 3일 수요말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성령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본 문 아모스 8장 11~13절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와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에베소서 6장 10~19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말씀 시작>

1. 아모스 선지자는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쳤다.
2.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갖고 있는 고로, 기근이 안 들은 자다.
3.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젊은 시대가 가장 충격이 많다. 그러나 젊은 자들이 말씀을 제일 멀리한다.
4. 하나님은 나이를 계산 할 때, 정신의 나이를 계산하라고 하셨다. 정신의 나이로 계산해야지 육의 나이로 계산하면 안 된다.
5. 말씀의 흉년이 오면 젊은이들이 가장 치명적이다. 마치 비가 안 오면 어린 곡식들은 덜 하지만, 한참 물을 빨아 먹는 성장기의 나무들이나 곡식들은 최고의 여파가 있는 격이다. 고로 비가 안

오면 바로 시든다.

6. 성경을 보면 말씀을 물로도 표현한다. 이와 같이 젊은이들이 말씀을 못 들으면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여파가 크다.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도 한참 배워야 할 때 배우지 못하면 갈등 속에 헤매게 된다.
7. 선생은 1978년도에 시대 말씀을 받고 준비해서 고향을 떠났다. 이 때 성자께서는 서울로 가라고 하셨다. 서울은 젊은이들이 많고 대학교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 곳에서 비틀거리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희망을 주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한 자들은 그들이 지나가면 환경이 비틀비틀 할 정도로 환경이 변했다.
8. 젊다는 것은 두 가지를 품을 수 있다. 육적 젊은이와 신앙의 젊은이다. 신앙의 젊은이들은 한참 신앙이 붙붙어서 열심히 하는 자들이다.
9.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지금 신앙에 불이 안 붙고 열렬하지 않으면 나이 먹은 것이다.
10. 영계에 가면 점착제를 붙여놓은 곳이 있다. 이곳은 영들이 들어붙어 있다. 이성에 붙은 자, 세상 늪에 빠진 자, 술에 빠진 자, 각종 자기 사고에 빠진 자들이 끈끈이처럼 들어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11. 영계는 실제 그러한 세계다. 혼과 영을 끈끈이에서 끊어지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면 툭 끊어진다. 그리고 바로 실천해야 된다.
12. 선생은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은 2천 년이 가도 동일하다고 깨달았다. 고로 다시 오셔도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같은 젊은이들을 손대어 동일하게 역사를 펴신다는 것을 알았다.
13. 지금도 똑같다. 종교에서 젊은이들이 나가고 쓰러지면 힘이 없다. 섭리사는 젊은이들이 살아나서 이 시대에 동에서 남까지 생명 역사를 펴면서 밤낮으로 뛰고 있다.
14. 선생이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께 사실상 기도는 어떻게 하나고 물어봤다.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더 깊이 하라. 더 많이 하라.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을 갖고 해야 많이 깊이 할 수 있다.” 하셨다. 그러므로 중언부언 하지 말고 하나씩 기도해야 육계를 지나서 영계로 들어가게 된다.
15.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시간이고, 연애하는 시간이고, 대화하는 시간과 같다. 고로 사랑이 불타면 오랫동안 얘기한다.
16. (아모스 8장 13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 하여 피곤하리라 -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대로 기성은 정확하게 기

갈 중에 있다.

17. 계시라는 것은 받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나면 확실한 계시다. 그러나 실제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 의지와 자기 인식관으로 받은 계시다.

18. 섭리인들은 기성에서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섭리사로 왔다. 섭리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끝도 없이 있다. 그러므로 요셉 때 양식의 풍년이 들듯이 모든 젊은 처녀와 남자들이 말씀의 풍년이 들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 신부들이 되어 성장하고 있다.

19. 에베소서 말씀에는 신앙의 무장에 대해 나와 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 속에 사랑의 갑주와 화평의 갑주도 입게 되고, 다 입게 된다.

20. 전쟁터에서 무장하듯이 무장하라.

21. 전쟁터에서 투구와 갑옷을 입고 싸우면 칼로 찔려도 멀쩡하다. 이와 같이 신앙 무장을 확실히 하라.

22. 자기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계시가 정확하게 온다. 그것은 참된 계시다.

23. 사도 바울이 전쟁의 비유를 든 것은 그 꼴을 봤기 때문이다. 고로 창으로 찌르는 것을 보고 투구는 마치 구원의 투구라고 비유

한 것이다.

24.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실한 구원을 받은 것을 알고 흔들리지 말라고 했다. 이 시대 말씀을 듣는 사람도 똑같이 흔들리지 말라고 했다.

25. 기도의 무장, 말씀의 무장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라.

26. 기도하면 꿈에 실탄을 보여준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면 총으로 보여준다. 총과 실탄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27. 어떤 사람은 총은 있는데 실탄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실탄은 있는데 총은 없다. 이는 말씀은 시원찮게 듣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다. 두 가지를 완전히 갖춰야 된다.

28. 회개를 좋아하지 않으면 못 살아난다.

29. 회개를 창피하게 생각하면 못 살아난다. 회개를 좋아해야 된다.

30. 회개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안 한다. 부끄러움을 피하려다가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간다.

31. 선생은 베트남 전쟁 때, 무장을 했다. 투구를 쓰고 총도 가지고 방탄복도 입고 무장을 했다. 그러나 다 버리고 재무장을 했다. 바로 사랑의 무장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적을 사랑하며 사랑의 무장을 했다.

32. 선생은 엄청난 무장을 풀고서 사랑의 무장을 하니, 하나님은 선생에게 “사랑하라~” 하는 음성을 주셨다. 그냥은 못 했다. 말쑥의 무장, 영적 무장을 했기에 가능했다.
33. 선생은 육적 무장을 풀고서 영적 무장을 하고 사랑의 갑옷, 전신갑주를 입고서 적에게 쫓아갔다. 어느 시대든지 이러한 무장을 해야 된다.
34. 지금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과 악과의 싸움이다. 형제와의 싸움이 아니라 악과 싸우는 것이다.
35. 사탄이 악이다. 사람 속에 들어 온 것이 악이다. 고로 악과 싸우는 것이다.
36. 선은 악과 싸우는 것이다.
37. 선생이 한참 옥에서 기도생활을 할 때 영의 세계를 보니까 빨간 옷을 입고 훈련을 하는 영들이 많았다. 이들은 수만 명이었는데 붉은 옷을 입고 창을 들고 투구를 쓰고 머리를 뺄뻣 밀었다. 머리를 민 것은 단단한 각오와 집념이었다. 그들이 무서운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보니까 마귀들의 교육이었다. 교육이 끝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쳐부수러 간다고 하는 것을 보고 선생은 옥에서 기도했다.

38. 어떤 것이라도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도록 실천하니 다 물러간다. 말씀의 무장이다.
39. 바울은 요한계시록에 사탄의 깊은 것을 알라고 했다. 사탄을 이기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사탄을 이기고, 사탄이 형제를 찢는 것이니 형제를 미워하기보다 먼저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된다.
40. 사랑할 때 평화가 온다.
41. 선생이 오늘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를 하면서 받은 말씀이다. - 선생은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창조 목적으로 볼 때 인간이 하나님 같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받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의 사랑이 뭐가 그렇게 기뻐니까?” 하고 물었다. 이때 하나님은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으면 계속 간다.” 하셨다.
42. 신이고 사람이고 목적지에 다 왔을 때 만족한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
43. 하나님은 사랑의 한계를 정해 났기 때문에 사랑의 만족을 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만일 한계를 안 정해났으면 늙어 죽을 때까지 사랑을 해도 만족이 없다.
44.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자기가 해주고 싶은 대로

다 해주면 사랑을 다 한 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만족한다. 그리고 형제도 받았으니 만족한다.

45. 어떤 임금이 있다고 하자. 그 임금은 없는 것 없이 다 있기 때문에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러나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도 한 여인이 그를 사랑한다면 임금은 사랑의 만족으로서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 이것은 60년 만에 오늘 새벽에 떴 인봉이다.

46. 인간으로서는 사랑만이 하나님께 만족을 시킬 수 있다.

47. 하나님이 땅을 산다고 만족하지 않으신다. 지구덩이 자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 것이 아니다. 사랑은 자기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면 하나님은 만족하신다.

48.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49. 선생은 “하나님, 이 시대 말씀을 듣고 휴거 됐나, 안 됐나 다 묻는데 한 마디 말씀해주십시오.” 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시대 말씀을 듣고 내 보낸 자 믿고 나 여호와를 더 없이 사랑하면 그로 인정함을 받는 자는 휴거됐노라.” 하셨다.

50. 이 시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흠 없이 인정하면 휴거된 것이다.

51. 사랑으로 휴거된다. 절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휴거다.
52.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물도 사랑도 한계를 두신 것은 만족하기 위해서다. 한계가 없으면 만족이 없다.
53.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자신을 만족하도록 한계를 뒀노라.
54.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극히 약한 인간들도 만족하게 할 수 있다.
55. 하나님은 지구 덩어리만한 땅을 준다고 해도 만족치 않으신다. 오직 사랑만이 영원한 만족을 갖고 있다.
56.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랑만이 만족하다.
57.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함을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 만족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 하라.
58. 하나님이 만족하는 사랑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하라.
59. 선생은 오히려 육적인 총과 칼을 집어던지고 사랑의 무장을 하고 살았다. 이는 멋있는 삶, 위대한 삶, 사랑의 영웅적인 삶이었다.

60. 주가 기도를 많이 해서 깊은 진리를 주도록 따르는 자들이 기도 하라.

61. 주가 많은 진리를 받아서 이 시대 신부들에게 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쁘게 해주리라.